

연잎 청자비색에 담다



김광길 전 서남대 교수, 내달 17일까지
강진아트홀서 기획 초대전 열어
큰 캔버스와 도예 작품 조화롭게 배치



품으로, '연잎'이라는 주제를 통해 '청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작가만의 독창성과 감수성으로 표현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이번 기획전은 작가의 고향인 강진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이라는 점에서 군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기획전에 대해 김현식 전 동부산대학교 총장은 "김광길 작가의 작품은 과거와 미래의 연결, 동양과 서양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김광길 작가는 대학에서 20여년 간 후진을 양성하다 최근 작가로 전향해 작품에 대한 열정적인 노력으로 남원, 서울, 구례, 강진 등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조선도공의 훈이 담긴 남원에서 남원국제도예캠프를 개최하면서 한국도에 발전과 확산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광길 작가(전 서남대 교수·사진)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강진아트홀에서 '연잎, 청자비색에 담다' 기획 초대전을 열고 있다. 강진 출신의 김 작가는 그동안 내고향 강진전, 남도미술 강진에서 꽃피우다, 다산과 영랑을 품으며 등 다양한 기획전에 초대되는 등 왕성한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작가의 작품 특징은 청자를 통한 표현 방식으로, 배경이 되는 큰 캔버스와 입체적인 도예 작품 및 적절한 여백과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작품 '연잎 이야기'는 거대한 설치 작

문화리더 양성과정, 비대면 전환

전북문화관광재단, 코로나19 대응
공통이론교육 등 온라인으로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2020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전북권 문화리더 양성과정 교육 및 워크숍을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권 문화리더 양성과정'은 전북에 적합한 문화리더 양성을 목표로 전북권 문화재단(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육생 36명(주제별 12명씩)을 선발했다.

재단은 '공통이론교육'과 '집중워크숍' 모두 온라인 전용 강의실을 오픈해 26일부터 비대면 영상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양성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했다.

'공통이론교육'은 1차 전교필 소강(전라도지 오그래픽 연구소)의 '문화기획의 키워드'를 주제로 한 교육과 2차 최혜자 대표(문화디자인 자리)의 '문화다양성과 성인지각수성' 교육을 영상 촬영했으며, 강사들의 질의응답에 관한 추가 영상도 배포할 계획이다.

'집중워크숍'은 백승철 대표(소셜벤처 쉼퍼

센트)가 강사로 참여해 활동 중심형 워크숍, 팀 프로젝트 수행, 질의응답을 '디자인생각'으로 진행한다. 공통이론교육과 마찬가지로 전용 온라인 강의실에서 진행하며, 사전 녹화 강의를 학습 시간 내 이수하면 된다.

또한, 재단은 코로나19 확산의 추이를 지켜본 후 남은 주제별 교육과정의 비대면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혜경 정책기획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교육생들과의 대면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지만, 교육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는 교육인 만큼 온라인 기기 작동에 미흡한 교육생들에게는 사전 유선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창업 아이디어 경진 참가자 모집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도내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제1회 여성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여성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실현 가능한 창업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사업화 자금 지원, 멘토링 지원, 인큐베이팅(창업보육 및 설립준비) 및 지역자원 연계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도내 예비 여성 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 미만인 여성으로 개인 및 팀(10명 이내) 단위 참여도 가능하다. 지원은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접수하면 된다.

대회일정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개인과 팀을 대상으로 2차 창업캠프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본선 진출에 따른 창업아이디어 발표 시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과 PPT제작이 지원된다.

또한 3차 본선 대회에서는 최종 5팀을 선발하며 최우수상 100만원(1팀), 우수상 50만원(2팀), 장려상 30만원(2팀)을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창업 멘토링 및 창업 매대, 창업부스와 같은 창업 공간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운애 센터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여성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여성들의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사장(死藏)되지 않고 창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여성특유

의 섬세함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도내 여성들의 참여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예술대상 수상 후보자 신청접수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9월 24일까지 2020년 전라북도 예술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전라북도 예술대상'은 전라북도 문화예술 창작 및 진흥에 공로가 큰 예술가를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전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수상 후보자 추천인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의 내용을 참고해 양식에 따라 추천서, 공적조서 등을 작성한 후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수상자는 공적심사 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12월 5일 전북예술회관 전실에서 공적 활동 기록 전시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2019년부터 '전라북도 예술대상'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각 예술 분야에서 전북 문화예술 발전과 창작활동에 큰 성과를 이룬 5명의 수상자를 선발해 시상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로 지친 삶에 '책 읽는 즐거움' 안기다

김제교육문화회관 '소확행을 찾다' 이벤트

김제교육문화회관에서는 오는 10월까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소확행을 찾다'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소확행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방문이 힘든 집콕 독서족에게 '책과 함께 거리두기' 비대면 독서문화행사로, 화훼농가 및 지역서점 상생을 위해 꽃과 함께 책을 선물로 주는 행사다.

도서관 소확행 행사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회관에서 책을 대출(5월까지는 비대

면 예약대출서비스) 한 후, 대출도서 중 1권을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에 독서감상문을 올리면 된다.

매달 선착순 20명에게 읽고 싶은 책 2권과 작은 꽃다발(미니 화분)을 선물 상자에 넣어 증정하고 있다.

현재 3개월 간 5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내가 읽은 책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고 나의 독후감도 공유할 수 있어 좋다"며 "평소에 간직하고 싶은 책을 2권이나 선물로 받고 거기에 화분까지 받으니 기분도 up, 지식도 up되는 기분이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도서관 소확행은 독후감을 쓰면 받고 싶은 책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신박한 프로그램이다"며 "책을 읽어서 제출한 독후감으로 또 다른 책을 얻게 되니 이것은 그야말로 독서계의 황금알을 낳은 거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는 소확행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해 준 김제교육문화회관과 담당자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장효람 관장은 "이번 도서관 소확행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의 삶에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소확행 선물을 받는 행복한 순간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